

## 한·미 FTA가 우리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박 경 | 목원대학교 교수

한·미 FTA현상에서 쌀에 양허관세율 50%가 적용되고 나머지 품목은 전부 관세가 폐지된다고 가정하는 경우(시나리오 1) 총 연간 피해액은 9,901억원, 쌀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된다고 가정하는 경우(시나리오 2)에는 약 1,425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품목별로는 미곡, 식용콩, 돼지, 한우, 포도, 사과 등의 피해액이 1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군별로는 쌀을 포함한 경우 당진이 1천 3백억 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이 서산, 예산, 아산 등의 순이다. 한편 쌀을 제외할 경우 천안시가 가장 피해액이 크고 다음이 예산, 홍성, 아산 순으로 피해액이 클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충남 농어업·농촌종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 차원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별, 시군별 이해당사자들과 협의기구나 대책반을 마련하여 충남의 이해를 반영한 협상단체 설정을 중앙당국에게 요구하고, 도내 피해 최소화화 구조조정의 대책 마련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 구조조정, 농산물 수출의 확대와 개방에 적응이 어려운 고령·중소농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